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의 핵심적 추진역할

*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 Asia Unit Load School*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상근부회장 박 은 규

파렛트는 물류의 기본이다.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를 실현하여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면 아시아 물류선진화를 통하여 역내 물류효율화는 물론 무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하여 2006년에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창립 운영과 AULS(Asia Unit Load School) 교육활동으로 아시아 전역에 많은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 아시아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를 통한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 편집 실 -

I. 아시아 물류고속도로 건설사업(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 구축사업)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 →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 → 아시아물류현대화>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지난 1996년 5월 협회창립 이래 3대 주요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류표준화활동 전개

- 물류표준화 : 파렛트 표준화 계몽촉진 활동
- T-11형(국가일관수송용표준파렛트) 파렛트 보급 추진
- 기업의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지원 활동

2. 국제표준화활동 : ISO/TC51

- T-11형 국가표준파렛트를 ISO6780 국제표준규격화, KS규격의 국제 정합화 사업
1996년 ~ 2003년 8년여의 노력으로 ISO6780 국제표준규격 개정에 성공

3.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이하 APSF)의 설립 및 AULS(Asia Unit Load School, 이하 아시아유닛로드스쿨) 운영을 통한 물류인재 양성

II. 추진활동의 성과

1. 3대 주요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T-11형 국가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 보급 사용율은 협회창립(1996년 ~ 2007년) 10년만에 10%에서 39%로 향상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파렛트 표준화 및 이를 통한 물류표준화의 성공사례가 되었다.
2. ISO/TC51(파렛트전문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8여년의 노력 끝에 ISO6780개정 작업을 통한 T-11형 국가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의 국제표준규격화에 성공하였다.
3. 2003년부터 한·중·일 동북아 3개국 파렛트표준화를 적극추진하면서 아시아 8개국이 참여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기구인 APSF를 2006년에 창립하여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규격을 제정하고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한 물류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아시아유닛로드스쿨을 지난 2007년 태국에서 제1회를 시작으로 2008년 제2회 베트남, 2009년 제3회 말레이시아 2010년 제4회 인도네시아(예정) 개최하였다.

아시아유닛로드스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50여명의 아시아 각국 정부의 산업표준담당기관의 공무원, 물류단체임원, 기업물류 관리자 등의 연수생을 선발하여 유닛로드시스템 교육프로그램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이 장차 자국의 파렛트 표준화를 통한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의 핵심인재 그룹으로 육성되어 자국의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할이 기대되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III. 아시아물류고속도로(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의 조기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 구축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의 핵심은 APSPF(회원국 :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가 제정한 아시아일관수송용 평 파렛트와 유닛로드 모듈에 의한 수송용상자(컨테이너)의 표준화를 통해 아시아 유닛로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추진 활동이 요구된다.

1단계 : 아시아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참여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컨센서스 도출

2단계 : 아시아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규격의 아시아 각국의 자국 규격화

3단계 : 아시아 각국이 자국 산업계에 아시아일관수송용 평 파렛트의 홍보 및 보급 촉진정책 전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추진활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산업표준 업무 담당 정부 관리 관계기관, 물류업계 등의 일관된 교육활동을 통하여 물류인재의 양성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1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여 왔으며(2003 서울 아시아파렛트표준화컨퍼런스 개최 MOU작성), 현재 아시아유닛로드스쿨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15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2011년 부터는 아시아유닛로드스쿨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아시아 각국의 엄선된 연수생을 대상으로 제2단계 국내초청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4. 2단계 사업은 아시아 각국이 아시아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규격을 자국의 산업표준 규격으로 채택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중국 자국 규격으로 채택 GBT2934) 본 사업은 아시아유닛로드스쿨을 수료한 각국의 산업표준담당자들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3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돌입하여 자국 산업계에 홍보, 보급촉진, 표준화 확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IV. 맺는말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은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물류역사에 기록될 획기적인 사업이며 아시아 물류선진화를 통한 아시아 경제권의 지속적인 발전의 귀중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역내 물류효율화, 무역증진, 자원절약, 지구환경보호(산업폐기물 감축) 등의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 오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본 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중단 없이 추진하려면 많은 노력과 비용, 인내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의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결과는 기초를 확립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나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단독으로 전체 단계 과정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정부차원 및 국내 물류단체, 물류관련 기업, 물류관련 학계 등의 폭 넓은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만 아시아 물류고속도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건설될 것으로 믿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통하여 역내 리터너블 풀 파렛트에 대한 무관세 제도 도입, 아시아유닛로드스쿨 운영 등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특히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공동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관련기관 및 단체인사들의 물심양면의 적극적 지원을 바라는 바이다.